

Time Lapse : 어느 시간에 탑승하시겠습니까?

February 15 – March 13, 2024
267 Itaewon-ro
Seoul



Jinhee Kim, *In the Theatre*, 2023 © Jinhee Kim, courtesy ThisWeekendRoom

페이스갤러리 서울은 인물을 기반으로 회화 작업을 하는 한국 작가 8인의 그룹전 《Time Lapse : 어느 시간에 탑승하시겠습니까?》를 2024년 2월 15일부터 3월 13일까지 개최한다. 큐레이터 **맹지영**의 기획으로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8명의 한국 작가, **김정욱, 김진희, 류노아, 박광수, 서용선, 이우성, 이재현, 정수정**을 통해 형상(인물)을 기반으로 여러 시간을 관통하고 있는 회화 작품들을 1-3층 공간에 걸쳐 선보인다. 자신을 둘러싼 시대의 사회와 공간의 변화를 감지하며 각자가 통과하는 시간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8명의 작가들은 시대와 환경을 반영하기도 하고, 인간 내면과 그 본질에 대해 인물의 형상을 포털 삼아 공간을 확장하기도 하며,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넘나들기도 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소개하기 위한 페이스갤러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8명의 작가들은 각자의 작업 안에서 본인 고유의 타임랩스(시차)를 겪어내며 관객과 만나게 된다. 그들의 다양한 세대만큼이나 대상을 대하는 작가적 태도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1층에서는 동시대 다른 세대의 두 작가, 서용선과 이우성을, 2층에서는 유한한 시간성과 존재론적 고민을 포함한 내면의 세계를 주로 보여주고 있는 김정욱, 박광수, 류노아, 이재현의 작업을 주로 선보이고, 3층에서는 현실과 판타지를 오가며 다층의 세계를 보여주는 정수정, 개인의 정서적 시간의 격차를 들여다보며 내면을 탐구하는 김진희, 그리고 연결되고 순환하는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그리는 김정욱과 유한 시간을 상기시키는 류노아의 작품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 참여 작가들의 작업은 물리적인 시차부터 정신적인 시차까지 가시적, 비가시적인 시차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시대적 정서를 이해하는 과정의 결과물이면서, 세계와 그 안의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의 산물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경이로운 집합이다.

이번 전시는 비영리기관인 두산아트센터의 두산갤러리 큐레이터로 활동한 맹지영이 기획했다. 그는 서울과 뉴욕에서 전시를 기획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금호미술관 등의 기관에 신진 및 중진 전시작가의 작가론과 다양한 미술매체에 리뷰 등을 다수 집필했고, 저서로는 『스몰토크: 뉴욕에서의 대화』(북노마드, 2015)와 『그림의 시간, one at a time』(소환사, 2023)이 있다.

페이스는 동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미술 갤러리로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예술가들과 더불어 알렉산더 칼더, 장 뒤뷔페, 바바라 헵워스, 아그네스 마틴, 루이스 네벨슨, 마크 로스코 유족 및 재단과도 수십 년 간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페이스는 설립 초기부터 추상 표현주의와 빛과 공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면서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갤러리로 자리매김했다.

1960년 아네 글림처(Arne Glimcher)가 설립한 이래로 예술가를 가장 우선으로 하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갤러리로 발전해 왔다. 현 마크 글림처(Marc Glimcher) 회장이 이끄는 페이스는 지속적으로 예술가들을 지원하면서, 그들의 독창적인 작업을 전시, 프로젝트, 공공 설치, 기관 간 협력, 큐레이토리얼 연구와 500여 권에 이르는 출판물 등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페이스는 뉴욕 첼시 25가에 위치한 두 개의 갤러리(2400여평의 전시공간과 새로 오픈한 7층 규모의 건물)를 포함해 런던, 제네바, 베를린, 홍콩, 서울, 로스앤젤레스까지 전 세계 7곳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페이스는 아시아에 최초로 진출한 국제적 갤러리로서, 베이징의 사무실과 뷰잉룸 뿐만 아니라 홍콩과 서울에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봄, 페이스는 도쿄의 아자부다히 힐스 지역에 갤러리 공간을 개관할 예정이다.

Press Inquiries

Kyungmi Kim
Public Relations Associate
kkim@pacegallery.com
+82 070 7708 7755

Follow Pace Gallery

 @pacegallery
 @pacegallery
 @pacegallery
 @pacegallery